

5/ 네티위크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황성빈



황성빈(黃盛彬) 릿쿄대학(立教大学) 사회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 릿쿄대학에 파견되어,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릿쿄대학 사회학부 조수(助手),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산업사회학부 조교수를 거쳐 릿쿄대학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샌디에이고(2003~2004)와 밴쿠버(2012~2013)에서 각 1년간 연구년을 보낸 바 있다. 전공은 사회학, 미디어 연구, 저널리즘이며,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과 비교저널리즘론을 가르치고 있다. 엮은 책으로 『韓流のうち外』(徐勝・庵途由香 共編著, 御茶の水書房, 2007)가 있고, 논문으로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언론중재』, 2013. 가을호), 「韓流と反韓流の交差—日本人アイデンティティと韓国認識」(『日本學』 33, 東國大学校文化學術院日本學研究所, 2011), 「テレビは歴史を語れるか」(『放送レポート』 226~233, 2010. 9~2011. 11) “China Image and a Self-Portrait of the Japanese”(Asian Communication & Media Studie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Press, 2008)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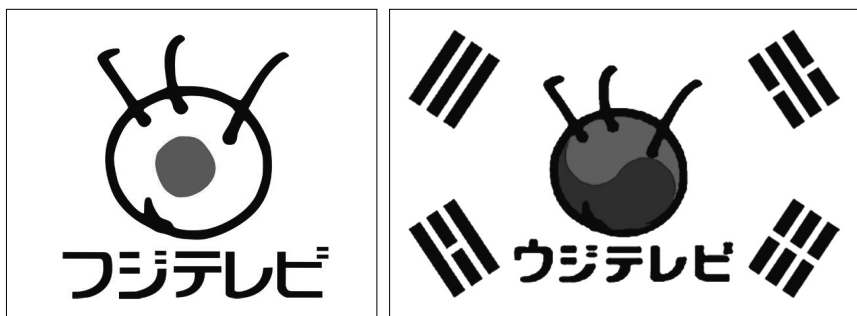
1. 2011년 여름, 반한류데모

2011년 여름, 도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해 3월 11일 도호쿠 지방을 덮친 쓰나미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고, 후쿠시마(福島)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를 멜트다운의 상태로 몰아갔다. 한동안 소강 국면에 있던 반원자력 운동의 기억이 되살아나 정치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거리에 나와 반원전운동에 합류하면서 일본 전국에서 데모가 이어졌다.

그해 여름 도쿄의 오다이바(お台場)라는 곳에서는 반원전데모와는 다소 다른 데모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 TV 방송국 앞에 수천 명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방송한다며 국기(日の丸)를 휘날리며 항의하는 데모를 벌인 것이다. 그들은 그 방송국이 보도뿐 아니라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을 편드는 편파방송을 했다면 공정방송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체를 통괄하는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모여든 군중이 수천 명에 육박했다.

이 반한류데모에는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이 있다. 후지TV는 보수성향이 강한 방송사로 한국과의 대립 국면에서도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는 뉴스를 내보내고, 정치 및 역사인식과 관련해 좌우를 가르는 주요 이슈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기운다고 평가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계열 신문사는 바로 우익(보수)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이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민당의 보수 정치와 당시 한국의 정권의 관계를 ‘일한협력’(日韓協力)이 제대로 기능했다고 보며, 스스로를 ‘친한(親韓)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넷우익’의 타깃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낮 시간대에 편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방송사에 비해 유난히 많았던 것도 아니었다. 2011년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에는 한국 드라마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¹

1 한국 드라마는 공중파 방송의 신규 채널인 위성방송 채널에서 많이 편성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주



〈그림 1〉 후지TV의 로고마크와 후지TV의 한국 편향을 비판하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이 데모가 한 영화배우의 트위터 메시지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다카오카 소스케(高岡蒼甫)라는 배우는 그 해 여름 자신의 트위터에 후지TV가 너무 많은 한국 드라마를 방송한다면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텔레비전을 꺼버리겠다고 썼다. 일본의 전통적인 드라마를 더 보고 싶다고, 그 전통적인 드라마가 어떠한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 트위터가 일본의 최대 인터넷 게시판이자 반한·반중 배외주의적 주장으로 가득찬 것으로 알려진 ‘2채널’을 뜨겁게 달구었고, 여기서 누군가가 오프 모임 시위 행동을 벌이자고 촉구한 것이 수천 명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후지TV 앞에서 벌인 데모에 그치지 않고 당시 후지TV에서 방송되고 있던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던 여배우

부’를 대상으로 한 공중파 방송의 낮 시간대에서 주로 방송되고 있다. 공중파방송의 오전 10시경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경부터 저녁 시간까지는 이전에는 주로 과거에 방송된 드라마의 재방송이나 이른바 ‘히루메로’(昼メロ: 낮 시간대 멜로드라마)라고 불리는 저예산 외주 드라마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주부층에 인기가 있는 한류 드라마가 이 시간대를 차지하면서 이러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부의 프로덕션과 일류가 아닌 배우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론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당시에도 일류라고는 할 수 없었던 다카오카 소스케(高岡蒼甫)의 주변에는 한류 드라마에 밀려난 사람들 사이에서 방송국의 한류 드라마의 선호에 대해 불평이 오고갔을 개연성은 있다. 한편 성우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기도 했다. 한때 미국 드라마가 유행할 때 일거리가 많았던 성우업계는 국산 드라마가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거리가 줄었다가 한류 드라마의 유행으로 다시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류 드라마의 일본어 더빙을 맡은 성우의 목소리는 얼핏 듣자면 한때 형사 콜롬보나 맥가이버의 목소리와 비슷하기도 하다. 한류 드라마 초창기에 마치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의 대사와 같이 일본에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 ‘폼잡는’(キザな) 대사가 많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는 성우의 목소리 연기의 특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많은 일본의 여성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노스텔지어’를 느끼는 것은 이러한 사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본다.

김태희가 과거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반일 여배우’로 낙인을 찍고 비판했다. 심지어는 김태희를 TV광고에 기용한 가오(花王)를 타 것으로 광고 스폰서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시위를 연속적으로 벌이기도 했다.²

그들이 시위 때 들고 다녔던 피켓의 메시지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피켓에는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No More Zombie Wave’, ‘Fuji TV Stop Propaganda. We are not right-winger. We are just patriotic’, ‘Stop pushing Korean Wave’, ‘Stop Fuji TV Korean Propaganda Broadcasting’, ‘No more distorted broadcasting’, ‘Stop pushy pro-Korean propaganda. Enough!’, ‘Fuji TV 8ch Don’t manipulate public opinion’ 등이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들이 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과거 2002년의 반한 오프 모임, 즉 ‘한국 측의 부정’을 ‘세계’에 항의하며 준결승에서 독일을 응원하자며 집결한 퍼블릭 뷰잉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2채널 반한그룹의 인식에는 세계는 곧 영어로 연결된 서구세계이며 한국은 그와는 구별되는 아시아이며, 따라서 영어로 메시지를 적어서 발신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항의가 한류 드라마를 향하기보다는 한류붐이 조작된 것이고,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선전공작이 있으며, 후지TV나 방송사의 광고영업에 영향력이 있는 광고회사 덴쓰(電通)의 협력이 있다고 하는 음모설은, 바로 2채널 등의 반한그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인터넷상의 담론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시위 참여가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정치적 시위와 달리 통일된 조직이나 연대가 없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온/오프의 다양한 집단이 시위 참여를 호소하며 참가한 것도 사실이다. 즉, 온라인상의 많은 토론방의 참가자들의

2 이 데모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황성빈, 「韓流と反韓流の交差: 日本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韓国認識」, 『日本学』 33권, 2011, 133~167쪽 참조.



〈그림 2〉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의 한 거리에 게시된 자민당의 포스터(2014년 1월, 필자 촬영). 2012년 말 자민당은 '일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자민당 포스터 옆에 부동산의 간판에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라는 글자가 보인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시위이기도 했지만, 그뿐 아니라 다양한 우익 성향의 조직들이 그들의 주장을 어필할 기회로서 그 열기를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데모의 현장은 다양한 소그룹들이 각양각색으로 모여들었던 컨퍼런스 같은 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는 데모 현장을 가득 메운 '히노마루'(日の丸, 일장기)의 물결을 제외하면 반원전시위와도 비슷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데모의 발단을 제공한 다카오카 소스케라는 배우의 출세작이 교토를 배경으로 재일조선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린 〈박치기〉라는 영화이며, 거기서 그가 여자 주인공의 오빠 역을 연기했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이봉우 씨네카는 대표다. 이봉우 씨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교토의 히가시구조(東九条)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다카오카의 경우도 이 영화의 제작 기간 중 교토에서

많은 재일조선인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코리안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라기보다 단순히 또는 순진하게 왜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방송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다. 아무튼 한 영화배우가 별 깊은 생각 없이 내뱉어버린 중얼거림이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회에 확산되어 있던 배외주의를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결정적 촉매 작용을 한 셈이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먼저 ‘네티움’의 현상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네티움인지에 대해 논의한 다음, 주요 언론이 이 현상 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글에서 ‘네티움’이 특정한 주의·주장을 가진 가시적 정치 세력이 아니라 감정적 공감에 기반을 둔 유동적인 집단이며 사회 전체에 부유하는 어떤 ‘흐름’과 같은 것이어서, 마치 아메바처럼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하며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피하(皮下)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와 같이 지나친 자외선 접촉과 피부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표면화하는 한 ‘증상’이 아닌가 하는 필자의 추정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2. 네티움

먼저 언론에서 사용된 네티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주요 방송과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티움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은 2005년 5월 8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린 사사키 도시나오(佐々木俊尚)의 칼럼에서였다.

네티움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서 좌익적, 반일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맹렬한 비난 댓글이 쇄도한다. 이런 상황에 놀란 좌익계

의 사람들이 ‘조직화된 네티우익이 집단적으로 방해행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항의하게 된 것이 이 말의 시작이다.

사사키는 마이니치신문 출신의 독립 언론인으로 컴퓨터 월간지 『아스키』(アスキー) 편집장을 지낸 경력도 있고 인터넷 사회의 여론 현상에 관한 많은 저작이 있다. 그런데 아마도 『산케이신문』에 실리는 칼럼이어서 ‘좌익계’의 의미에 대해 암묵적 양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좌’와 ‘우’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일본과 같이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한 사상의 토양에서 좌우의 문제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왜 ‘좌익적’과 ‘반일적’이 병렬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산케이신문』에서 ‘좌익계’라는 말이 갖는 암묵적 지시대상은 『아사히신문』으로 대표되는 리버럴 세력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 『아사히신문』에서 ‘네티우익’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06년 5월 5일자 조간이었다. ‘위축의 구조’(萎縮の構図: 炎上³)라는 연재 기사에서 네티우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논의의 장에서 떠나는 것을 한시라도 용납하지 않는 ‘네티우익’이다. 수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자기 의견에 상충되는 생각에 대해 집요한 투고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익적인 생각에 입각한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산케이신문』과 달리 ‘우익적인 생각에 입각한’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좌익’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반일적’이라는 말도 없다. 『산케이신문』의 칼럼에서 말하는 ‘좌

3 炎上: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게시판 등에서 주목이 집중되어 격렬한 비판, 비방, 중상이 쇄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영어로는 Flaming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익적, 반일적'인 것이 무엇이고, 『아사히신문』의 기사가 가리키는 '우익적인 의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어느 신문에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입장이 다른 위의 두 신문에 나타난 설명에 이어 넷우익에 대한 더욱 중립적인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 넷우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블로그에서 보수적, 국수주의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들. 네토우요(ネットウヨ). 이렇게 불리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2002년 월드컵 대회 무렵이다.⁴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서 우익적, 국수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속어. 인터넷이 보급된 2000년 전반부터 주목받게 된 존재로서, 그러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근린 각국, 특히 한국,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재일외국인의 배제 요구 등이 특징적.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기존 미디어는 '좌익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과 과격한 주장으로 치닫는 경향이 보인다.⁵

추가되는 점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 재일외국인의 배제 요구 등이고, 기존 언론을 '좌익'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기존 언론에 '우익 미디어'도 통틀어 포함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좌익이고 누가 우익인지가 분명치 않다. 여전히 보수 매체인 후지TV가 왜 넷우익의 타깃이 되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로는 왜 최근의 우파 활동가나 언론인으로부터 넷우익에 대한 비

4 『デジタル大辞典』, 小学館(デジタル版).

5 『知識情報imidas』, 集英社(デジタル版).

관이 제기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1998년 초반 만화를 통해 신보수주의, 수정주의 역사인식을 퍼뜨렸고, 1996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참가해 미디어에도 자주 등장했던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넷우익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넷우익을 '네토우요'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뿐 아니라 그의 문하생들도 그렇다. 그의 비판의 요점은 보수 운동은 외국인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일적인 좌익과 외국에 대해 대항해야 하는데, 넷우익은 무작정 한국, 중국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바야시의 경우, 조선인이라도 친일적이면 포용해야 하는데, 넷우익의 입장은 친일적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한국과 조선을 싫어하고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바야시의 지적과는 달리 넷우익의 경우 한국, 조선을 혐오하는 입장을 밝히면 의외로 포용적이다. 극우단체로 알려지게 된 '재특회[재일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약자, 在特会(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회원 중에는 일본인뿐 아니라 '더블'(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나 심지어는 재일조선인 출신의 귀화 일본인도 있다. 또 고바야시가 신보수 운동에서 결별하게 된 원인이기도 한 미국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는 '반미'가 신보수 운동의 중심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넷우익들은 실은 한국, 중국 이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넷우익인지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고바야시도 연수입 200만 엔 이하의 저학력, 저수입의 못난 녀석들이라는 야유를 던지고 있고, 『인터넷과 애국』⁶이라는 취재서로 넷우익에 관한 활발한 논평을 하고 있는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도 비슷한 시각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넷우익 인식에 반발하여, 이는 '좌익계' 언론의 비방에 불과하며 후지TV 데모에 참가한 사람들은 훨씬 보통에 가까운 집단으로, 오히려 성실하고 진지하게 문제에

6 安田浩一, 『ネットと愛国 在特会の「闇」を追いかけて』, 講談社, 2012.

접근해 가는 ‘사회파’ 사람들이 많다는 반박도 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의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쓰지(辻大介)의 연구⁸는 네티우익에 대한 계량적인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네티우익에 대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했다. 오른 쪽의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회답자의 비율이다.

조건 1: ‘한국’, ‘중국’ 어디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6.8%, 367명)

조건 2: 헌법 9조 1항(전쟁포기)의 개정, 헌법 9조 2항(군대, 전력의 비보유) 개정, 초등학교 식전의 국기 게양, 국가 제창, 초중학교의 애국심 교육의 다섯 항목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6.4%, 64명)

조건 3: 최근 1년 동안에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다음의 세 활동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 (15.2%, 152명)

-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견이나 생각을 적었다.
-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았다.
-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일링리스트 등에서 논의에 참가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는 유효 샘플 수 988명 가운데 13명으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사 샘플이 인터넷 헤비 유저에 편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이 조사가 정의하는 네티우익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측했다.⁹ 결국 이 연구에서는 ‘네티우익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을 3항목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해당자를 31명으로 늘린

7 古谷ツネヒロ, 『フジテレビデモに行ってみた!』, 青林堂, 2013.

8 辻大介,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右傾化」現象に関する実証研究 調査結果概要報告書』 2008年 9月 10日(研究代表者 大阪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准教授 辻大介).

9 이 조사는 한 웹조사업체의 모니터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집단의 특성으로서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전체와 비교할 때 인터넷 헤비 유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 ‘넷우익’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남성이 84%로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 학력, 소득에 특징적인 편중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의 이용 행태에 대한 질문에서도 넷우익적인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넷우익적인 그룹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신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넷우익’ 집단을 왜소화시킨 요인은 조건 3, 즉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넷우익의 동조자들은 좀처럼 댓글을 달지도 않고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지만 심정적 동조를 느끼는 주장을 따라 클릭하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하루만에 7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좋아요’를 클릭했지만, 그 가운데 코멘트를 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 연구에서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견이나 생각을 적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0.2%,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았다’는 9.5%, ‘전자게시판이나 메일링리스트 등의 논의에 참가했다’는 3.5%에 불과했다.

또 넷우익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 2의 설문도 현상을 파악하는 데 부적절할 수 있다. 넷우익 운동이 반드시 통일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입장에 입각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배외감정에서 그 폭발적 에너지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 쟁점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사람이 6.4%에 불과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넷우익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조건을 3항목 이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추출할 경우 해당자가 31명으로 늘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통일성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면 모두 7단계 리커트 척도(Lickertis scale)에서 3의 ‘어느 쪽도 아니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찬성과 비교적 찬성을 합친 비율이 30.6%인데 비해 ‘어느 쪽도 아니다’는 36.1%,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도 20% 이상, 초중학교 식전의 국기 게양, 국가 제창에 대해서는 42.3%가, 애국심 교육에 대해서는 39.3%가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5단계 척도에서 각 나라에 대해 29.8%, 28.8%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답을 선택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네티움’ 현상이 고정된 특정한 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 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된 어떤 경향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보다는 주변 외국에 대한 호오(好惡)의 감정과 고정관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경직성의 정도에 따라 ‘하드 네티움’과 ‘소프트 네티움’으로 나누어보는 시도도 적절할 것이다.

201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네티움’적 경향은 바로 중간 지대에서, 그리고 ‘소프트’ 한 곳에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간 지대에서 네티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경화를 가늠하는 이슈에 대한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의 게시판과 블로그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며 강한 공감대를 느끼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네티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의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쓰지의 연구에서 일반적 인터넷 이용보다는 ‘2채널’ 이용이 더 우경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2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민 배척 감정, 이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높은 국가적 자부심(내셔널 프라이드)이라는 특징이 현저히 드러난 것이다. 이 밖에도 ‘2채널’ 게시판의 이용 빈도와 ‘인터넷 상의 비방’, ‘과격함 댓글’, ‘블로그의 과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은 관련을 보이고 있어, 결국 인터

넷상의 ‘우경화’ 현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의 이용에 대해서도 특정 미디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 접촉이 우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궁금해진다. 아쉽게도 이 조사에서는 설문지에 구독 신문에 대한 질문은 있으나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우경화 이슈를 둘러싸고는 신문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한국·중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신문마다 입장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넷우익’적인 성향과 특정 신문의 열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점점 인터넷상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일부러 ‘인터넷상의 신문사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읽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질문에 추가하여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 최근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가 선스타인(Sunstein)이 지적한 ‘사회 분극화 현상’¹⁰을 촉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필자의 의견을 추가해 보기로 하자. 먼저 넷우익은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 축구대회를 전후하여 한국에 대한 혐오 반응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투고하고 그 반응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1995년 무렵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신보수주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대중운동에 영향을 받으며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었던 현실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월드컵 공동개최, 〈겨울소나타〉의 인기로 확산된 한류붐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친근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는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준 충격과 중국

10 Cass R. Sunstein, *Republic.com 2.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의 부상으로 인한 견제 심리 등도 작용하여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나 호감의 증폭과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반감이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문화’ 영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고, 정치와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보수주의의 수정주의가 점차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한국과의 우호’를 강조하거나, 한류붐에 대해 언급하는 미디어를 좌익적, 반일적으로 인식하면서 기존 미디어에 좌익, 반일의 꼬리표를 붙이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모두에 다루었던 후지TV 앞의 시위는 바로 그 정점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Unwanted Child’로 지적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¹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넷우익 현상은 기존 미디어와 사회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기존의 사회와 언론이 음으로 양으로 육성해 온 측면이 적지 않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인터넷상의 과격한 극우적 논의에 내용적으로 새로운 것은 오히려 적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그렇지만 사회나 공공 미디어의 영역에서는 일탈이나 터부로 여겨지던 것들이나 과격한 집단의 주장으로 인식되던 내용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분출된 것이다. 인터넷은 그러한 자유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우익적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1% 미만이라고 해도, 그 담론에 공감하는 심정적이고 소프트한 넷우익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다.

11 樋口直人, 「行動する保守の論理(7): ネット右翼のカリスマZ氏の場合」, 『茨城大学地域総合研究所年報』 No. 46, 2013, 81~90쪽 참조.

3. ‘넷우익’ 과 주류 언론

이 글에서는 구체적 분석으로서 주요 신문과 방송의 ‘넷우익’에 관한 보도, 그리고 최근에 활동이 표면화, 과격화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게 된 ‘재특회’라는 집단에 관한 보도의 분석을 통해, 일반 사회와 넷우익의 관련 및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넷우익’이나 ‘반한류’가 조직적 운동인 측면과 동시에 대중적 분위기, 또는 군중적 여론으로 볼 수 있기에 ‘여론의 분석’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 언론의 여론 지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는 일본의 주요 언론, 그리고 인터넷상의 담론을 대상으로 그 입장성을 정리해 본 것이다. 수평축은 좌파와 우파 또는 리버털과 보수의 위치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즉 속내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의 공간으로 나누어봤다. 혼네와 다테마에의 개념적 논의는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론의 차원에서 적용할 경우 ‘심정과 이성’ 혹은 ‘열망과 현실’로 바꾸어 적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착안하게 된 계기는 많은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혼네를 진심으로, 다테마에를 집단의 압력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표명한 태도로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적 의미를 조사할 경우, 인터넷은 혼네의 공간으로, 기존 언론은 다테마에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이분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주요 언론의 위치 관계는 수치화하거나 양적으로 파악하는데 주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신문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대해서는 독자들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매체들도 공유하고 있고 기자들도 내면화하고 있는 공통의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요미우리신문』보다 리버털하지만, 좌파 신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

	다테마에(建前), 정치적, 현실적, 사회적 여론의 공간		
리버럴	아사히 마이니치	NHK 요미우리	보수
좌파		산케이 넷우익	우파 우익
	혼네(本音) 심정적 여론의 공간		

〈그림 3〉 일본의 주요 언론과 여론 공간의 입장성

지 않을 것이다.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는 그림에서 아마도 왼쪽 끝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고,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방송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의 관계는 달라지겠지만 수직의 위치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더 소프트한 와이드쇼나 대중적 토론 프로그램은 일반 뉴스 프로그램이나 일간신문보다는 더 선정적이고 흥미 분위라는 점에서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각 미디어나 언론의 위치는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적이지도 않다. 신문 미디어도 훨씬 ‘혼네’에 가까운 매체도 있을 것이고—산케이신문이 비교적 그러한 것처럼—방송매체에서도 NHK는 더 ‘다테마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황이나 판세, 장에 따라 전체의 그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나 감정적 트라우마가 사회 전체를 지배할 때는 아마도 아래로 기울 것이고,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는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 여론의 지형도 안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위치 관계에 따라서도 변화는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으로 아래의 공간이 확대된 이후에 기존의 상부의 다테마에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언론매체의 입장에 따라 새로

출현한 혼네 공간의 입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도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때 왜 오른쪽 아래 공간의 입주자는 없는 것인지, 왜 인터넷 공간에 ‘네티익’적인 담론이 범람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 당연히 궁금해진다.

1) 네티익

먼저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네티익’이라는 단어가 뉴스 원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글의 후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주요 신문의 보도분석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요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네티익’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가 흥미롭다. 2013년 10월 31일까지를 검색 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네티익’을 포함하는 기사는 『아사히신문』 24건, 『요미우리신문』 2건, 『마이니치신문』 21건, 『산케이신문』 7건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뉴스 통신사인 교도통신(共同通信)의 경우 15건, 최근에 반원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좌파 신문’으로서의 평판을 넓히고 있는 『도쿄신문』(東京新聞)은 22건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그림 1>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네티익에 관한 보도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기사의 양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으로 ‘네티익’이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즉 어떤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각 신문의 네티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교적 많은 기사에서 ‘네티익’을 다루고 있는 『아사히신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사히신문』의 경우, 처음으로 ‘네티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6년 5월 5일자 조간의 사회면이었다. 언론 위축의 문제를 다룬 특집기사에서¹²에서 ‘네티익’에 대해 “우익적인 생각에 입각한

12 기사제목 원문은 「みる・きく・はなす」はいま萎縮の構造: 6炎上 他人のブログ, はけ口に, 『朝日新

의견을 갖고 있고 자신과 상충되는 생각에 대해 집요한 투고와 댓글을 다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기사들에서 그들을 배격하거나 경종을 울리기보다는 배경과 동기에 대해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죽은 자에 대한 추도도,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도, 모두 새로운 ‘공’(公)을 추구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범람하는 ‘애국심’의 배경에 과거(過去)와 타자(他者)와 연결되려는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시야가 좁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애국’에 속박되지 않는 새로운 ‘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2월 28일 조간)

“젊은이들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다양하지요. 넷우익이든 오타쿠이든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리얼하다면[신좌익 매거진 『로스제네』(Lost Generation의 약자) 편집장의 발언을 인용] …, 젊은이들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과 사상, 자신들의 노래소리로 유연한 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칼럼니스트 하야노 도오루(早野透), 2008년 5월 19일 조간)

그러다가 2010년 여름 재특회의 활동이 과격해져 체포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관련 사건 기사에 넷우익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위와 같은 동정적 분석보다는 새로 부상하는 운동 세력으로 인식하는 분석이 등장하는데, 기자의 분석보다는 외부 전문가나 학자의 견해로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아래와 같은 지적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12월에 넷우익의 강렬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聞』, 2006年 5月 5日 朝刊.

‘행동하는 보수’에 모여드는 것은 ‘넷우익’이라는 말로 묶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 그들은 종래의 ‘보수’와 뭔가 느낌이 다르다. 자연이나 사업으로 연결된 자민당 후원회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아니다. 도회적인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이 모여 동지를 찾고 있다. (2010년 3월 17일 조건)

시민 참가의 보수 운동이 등장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다. ‘새로운 역사교과서’ 운동이 그 출발이고, 납치 문제로 보수 여론이 고조되고, 그 연장에서 재특회가 태어났다.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파지만, 인터넷의 발신력으로 잠재적인 지지자를 개척하여, 가두 행동에 나서면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참가자는 행동은 과격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진지하다. 지금까지 시민 운동이라고 하면 ‘좌’였지만, ‘우’를 수용할 그릇이 없었다. 보수적인 것을 추구하면 과격한 단체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불행이 있다.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두려운 일이다. [스즈키 겐스케(鈴木健介), 2010년 3월 17일 조건]

“글로벌리즘과 고이즈미 구조 개혁의 영향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고립한 사람들이 급증했다. 그런 사람들 일부가 …나라를 사랑하고 행동하는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 저서는 안 된다”는 마초이즘뿐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략)

지금 애국심을 체현하는 정당이 있다면, 리버럴로 불릴 것이다. 공동체를 상실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타인에게 승인받고 싶은 욕망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넷우익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정치가들이 해야 하는데, 아베 씨는 거꾸로 넷우익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있다. 한심하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2012년 12월 27일 조건)

리버럴한 입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변혁할 수 있는 회로를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 왔겠지만, 인터넷이 보급되어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갖게 되면 넷우익 같은 세력이 출현하여 점점 세

상의 풍조가 우경화됩니다. 이런 현실을 리버럴 진영은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도야마 고이치(外山恒一), 2013년 7월 27일 조건]

그렇다면 주요 정치적 쟁점에서 네티익적 입장과 공명하는 보수 신문의 경우는 어떨까. 『요미우리신문』은 모두 3건의 기사뿐인데, 첫 기사는 2010년 9월 6일자 오사카판 조건에 교토지국발 기사로 실린 것이다. 교토시 미나미구(南区)의 교토제일조선초급학교(京都第一朝鮮初級學校, 이하 교토조선초급학교) 앞에서 시위 행동을 벌인 재특회의 멤버들이 기소된 뉴스를 ‘교토의 심층’이라는 해설기사로 게재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네티익’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애국심과 외국인 배척의 주장을 인터넷에 투고하는 사람들의 총칭이다. 배경에는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해 가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고용 불안에 대한 초조와 불안이 있다는 지적은 많다. (2010년 9월 6일자, 오사카판 조건, 교토 지역면)

이 단체의 데모는 그 이후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2012년 여름부터는 도쿄의 한류타운 신오쿠보에서도 벌어지게 되는데, 『요미우리신문』의 전국판에 처음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보도된 것은 2013년 7월 3일이었다.

『데모란 무엇인가』라는 저서가 있는 오노이 이쿠오(五野井郁夫) 다카치호(高千穂)대학 준교수는 ‘(20)00년대 전반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네티익의 댓글과 헤이트 스피치는 닳아 있다. 인터넷의 ‘축제’(祭り)의 기분이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활동이 동영상 사이트에 투고됨으로써 인터넷과 현실의 행동이 연동해 마이너스의 상승 효과를 낳고 있다. (2013년 7월 3일자 도쿄판 조건 제 2사회면)

이어 올해 12월 24일자 도쿄 조건에는 처음으로 정치면 기사에서 ‘네티익’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정치의 현장, 아베 정권 1년 (5)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기 모색하는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아베 정권의 1년을 돌아보는 기사에서였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넷우익'으로부터 '아베는 가겠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댓글이 달린 적도 있다. 아베의 고민과 초조는 깊다. (2013년 12월 24일자 도쿄 조간 정치면)

『요미우리신문』은 불과 3건밖에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넷우익'을 바라보는 인식은 『아사히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보도의 양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왜 『요미우리신문』의 안테나에는 이 움직임이 잡히지 않았는지,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던 것인지, 아니면 감추고 싶었던 것인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필자로서는 이런 추측들이 모두 일정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처음으로 넷우익의 문제를 다룬 것이 2010년에 재특회 멤버가 교토 조선초급학교 앞에서 벌인 데모로 위력업무방해,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때인데, 전국판이 아니라 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판 기사였다. 그 다음에도 2013년 여름 재특회의 데모 행동이 과열된 이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문제가 부상하자 해설기사에서 넷우익을 다루었다. 2013년 12월 24일에 처음으로 정치면에서 다루었지만, 직접 넷우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룬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의 1년을 되돌아보는 해설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아베 지지 세력의 일부로서 다룬 것이다. 이미 2000년 무렵부터 인터넷상에서 달구어지기 시작한 '넷우익'의 열기와 운동을 『요미우리신문』이 이렇게 소홀히 다룬 것이다. 더구나 주요 정치적 쟁점이나 한국, 중국과의 영토 문제,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입장이 넷우익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 문제, 즉 보수 신문이 '넷우익'의 움직임을 소홀히 했던 이유를 생각하는 데 있어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하나의 힌트를 제공한다. 『요미우리신

문』은 2013년 12월 24일에 처음으로 정치면 기사에서 ‘넷우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문맥은 수상으로 재기에 성공한 아베에게 ‘넷우익’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즉 『요미우리신문』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적극적 지지가 아닌 ‘외교를 고려한 자중’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넷우익’의 입장과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 수상이 12월 27일 갑작스럽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후 『요미우리신문』은 비판적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넷우익과 보수의 입장이 달라지는 지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경우는 어떨까? 모두 5건의 기사밖에 없지만, 첫 기사는 2005년 5월 8일자 도쿄 조간의 생활문화면으로 오히려 다른 신문보다 빨랐다.

‘넷우익’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서 좌익적, 반일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맹렬히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진다. 이러한 상황에 질색한 좌익계의 사람들이 ‘조직화된 넷우익이 집단적으로 방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게 된 것이 이 말의 시작이다. ... 이러한 현상을 조직적 방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민운동계의 사람들 특유의 책략사관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스미디어가 묵살해 온 신보수계 여론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얻어서 단숨에 표면으로 분출된 것이라는 것이, 실은 ‘넷우익’의 정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신문과 다른 점은 넷우익의 주장을 소외된 세력의 과격하고 편향된 주장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보수적 여론의 한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금해지는 점은 사사키(佐々木)가 지적하는 신보수계 여론과 우파 신문인 『산케이신문』의 관계이지만, 『산케이신문』의 칼럼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신보수계 여론이라면 『산케이신문』의 주요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 텐데 왜 그들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지하지 않았는지는 설명이 없다. 오히려 그

여론을 묵살해 왔던 매스컴에 『산케이신문』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칼럼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넷우익에 대한 비판을 시민운동계 사람들의 책략사관¹³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케이신문』이 보는 넷우익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였을지가 의아해진다.

『산케이신문』의 입장에서 ‘넷우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2006년 5월 25자 오사카 석간의 생활문화면에 ‘네트윙칭’이라는 기자의 기사에서도 드러난다.¹⁴

“최근 『아사히신문』이 ‘넷우익’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달 5일자 조간 ‘위축의 구조 블로그에 모이는 넷우익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상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넷우익’이란 ‘우익적인 생각에 입각’해 ‘자신과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투고와 댓글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며 … 이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플레이밍(=블로그 등의 과열 소동)의 계기는 작년(2005년) 1월에 NHK프로그램 개편 문제¹⁵로 NHK를 비판한 블로그의 운영자가 『아사히신문』 기자였다는 것이 발각되어,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벌인 후에 결국 블로그를 폐쇄하게 된 사건이었다. (중략)

블로그가 과열되는 현상은 … 많은 경우 정치적 논쟁과는 관계가 없고, 우파적 의견의 블로그만 과열되는 것도 아니다. …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대응

13 책략사관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이보다는 ‘음모(陰謀, Conspiracy)론’ 또는 ‘음모사관(陰謀史觀)’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또 일본에서 신보수와 극우 세력이 이른바 ‘좌파’를 공격할 때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14 이 기사에는 ‘마’(磨)라는 서명이 붙어 있다. 기자의 (준)기명칼럼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구 신문과 다른 일본 신문의 전통이다. 일본의 일간지 저널리즘에서는 신문사에 입사하게 되면 먼저 경찰 출입 기자(이른바 사쓰마와리=察回り)로 경력을 쌓은 다음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 다음 경력을 쌓은 다음 해당 부의 데스크가 되는 것이 경력의 경로다. 이러한 준기명 박스칼럼을 쓰는 기자는 보통 중견 이상의 기자인데, 이 칼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건기사 또는 하드뉴스의 글쓰기와는 다른 주관적인 경향이 강한 글쓰기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일본 저널리즘의 전통은 한국의 언론사 문화와도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5 2001년 1월 30일 NHK가 방송한 ETV(교육채널) 특집 ‘전쟁을 어떻게 재관할까’ 시리즈의 제2편 ‘추궁받는 전시성 폭력’에 대해, 『아사히신문』이 2005년 1월 12일자 조간에서 프로그램의 방송 이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관방부 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당시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보도한 문제를 가리킨다.

을 하면 좌우 막론하고 불기둥이 솟구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운영에 문제는 없었다. 비판자는 과연 균질적인 집단일까? 그런 검토없이 확실치 않은 정의로 ‘넷우익’이라는 집단에, 블로그에 쇄도하는 비난, 중상의 과열 현상의 원인을 돌려버리는 것은 상당히 조잡한 분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지성이 위축되는 구조이며 말의 힘이 쇠약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는 『아사히신문』의 입장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넷우익의 현상이 달리 특별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여론 현상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해하고 있는 점은 『아사히신문』이 넷우익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견해인데, 앞서 살핀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서도 해당기사에서 처음으로 ‘넷우익’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인데, 아마도 『산케이신문』의 기자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거슬렸던 모양이다.

또 같은 필명의 기자는 2006년 6월 8일자 석간에 ‘염상(炎上)이라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시 ‘넷우익’이라는 현상이 달리 특별할 것이 없다는 지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 기자에게는 젊은이들의 ‘우경화’로 연결되기 쉬운 ‘넷우익’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반갑지 않은 것이다.

‘넷우익’이라는 현상도 냉전 붕괴 후의 여론에서 ‘병든 언설’로 간주되는 기준이 좌파에 비판적으로 된 것의 반영에 불과하다. 과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특정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일부인 대중일 뿐이다.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넷우익에 대한 주목도는 『산케이신문』과 마찬가지로 낮았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인터넷상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우경화 움직임이라는 시각이었다. 『아사히신문』과의 차이를 발견하자면, 『요미우리신문』은 ‘격차사회에서 소외된 젊은 층들의 울분’을 애써 발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사히신문』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림 4〉 도쿄의 JR 전철 안. 2012년 봄에 생활보호수당의 부정수급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석간 타블로이드신문의 1면(2012년 4월, 필자 촬영).

이에 반해 『산케이신문』은 『요미우리신문』과도 다르다. 적극적으로 기사회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위에 인용한 칼럼에서 나타나듯이 『산케이신문』의 시각에서는 ‘넷우익’이라는 현상은 냉전 후의 좌파 여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발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언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는 인터넷상의 우익적 담론의 분출을 반가워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는 넷우익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같은 계열사인 후지TV에 대한 비판 데모가 열렸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갑자기 자연스러운 여론의 분출이라는 시각은 사라진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2010년에 처음으로 ‘넷우익’에 주목한 기사

가 게재되었는데, 『산케이신문』은 2006년에 이미 ‘넷우익’에 주목하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산케이신문』에서는 이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검토하게 될 ‘재특회’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산케이신문』은 넷우익의 움직임으로 연결시키는 어떠한 분석도 게재하고 있지 않다.

넷우익에 대한 각 신문사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시각에서는 ‘넷우익’의 원인을 격차사회의 확산에서 찾았다. 글로벌화, 신자유주의의 침투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대되면서 젊은 이들의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전통적 유대가 희박해진 점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희망을 상실한 소외된 젊은이들의 욕망의 분출로 바라보고 승인받고 싶은 욕구로 바라보고 있었고, 놀랍게도 ‘배외주의의 확산’이라는 시각은 드물었다. 그러한 점에서 『아사히신문』은 오히려 ‘보수’적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좌익, 반일 언론의 대명사는 바로 『아사히신문』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사히신문』의 어떤 기사에서도 그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넷우익’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아사히신문』과 비슷했지만, 격차사회의 문제의식은 없다. 다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산케이적인 시각은 더 특징적이다. ‘좌익 언론’이나 ‘시민 운동 세력’을 공격하는 전선에서는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에 같은 매스미디어에 화살이 돌아오게 되자 등을 돌린 격이다.

다시 말하자면, ‘넷우익’의 동향에 대한 주요 언론의 시각은 『아사히신문』이 ‘변명적, 동정적, 위선적’(apologetic, condescending, hypocritical)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은폐와 감추기’(concealing), 『산케이신문』은 ‘암묵적 심정적 지지’(tacitly sympathetic support)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산케이신문』이 오히려 현상의 타파를 긍정했다는 점에서 ‘급진적’(radical)이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넷우익’을 대표하는 존재로 부상한 ‘재특회’라는 배외주의 단체에 대한 보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넷우익’에 대한 주목을 비교한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즉 리버럴 신문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

는 반면, 보수 및 우익 신문은 낮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 재특회

재특회(在特会)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재일특권(在日特權)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약칭이다. 2006년에 결성되어 현재는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부가 있다. 2009년 필리핀 출신의 한 가족이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일본에서 태어난 당시 중학생 딸만 일본에 남고 부모는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자, 인권 차원에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운동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 있다. 당시 일본의 주요 언론의 보도와 여론은 동정적이었다. 이에 분개한 재특회의 회원들은 재판소와 이 가족의 집 앞에서 시위 행동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단체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회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2010년에는 교토제일조선초급학교가 학교 앞 공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위 행동을 벌였고, 또 모두에서 소개한 반한류데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근까지도 배외주의적 주장을 반복하면서 넷우익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단체의 경우 2010년에 벌인 교토제일조선초급학교 앞의 데모로 기소된 이후,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아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다. 주요 언론이 이 단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재판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 어떤 보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특회’로는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다. 필자가 이용한 데이터베이스(G-Search)는 NHK의 뉴스 원고로 등록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원고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나 오전에 방송되는 정보 프로그램¹⁶ 등의 방송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한류데모에 대한 보도를 찾기 위해 ‘신오쿠보’(新大久保)와 ‘데모’의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3건의 뉴스 원고가 발견되었다.

16 영어로는 데일리쇼(daily show)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민간방송의 경우 와이드쇼(wide show), NHK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세 기사 가운데 두 기사가 이른바 재특회의 데모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카운터데모’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특회의 데모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재특회의 데모를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그룹의 데모 움직임을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인종주의를 배격하고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른바 ‘양심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인지, 아니면 인종주의적 배외주의 주장의 범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반대파의 데모가 나타나자 ‘대립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조항에 충실할 수 있는 구도를 발견해서 비로소 방송을 하게 된 것인지는 단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필자는 후자의 설명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피해가고, 대립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NHK는 2013년 5월 13일 모닝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의 ‘중립적’ 언론이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신오쿠보의 화장품 가게 경영자: 일본이 좋아서 왔는데, 일본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은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거리를 지나던 일본인 손님: 양측이 아무리 다투고 있더라도 이런 데모로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겠지요. 보고 있기만 해도 슬퍼져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한 한국인이 데모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에 서명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비추어진다. 그 다음에 아나운서는 이렇게 정리한다.

“국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변호사 그룹이 통제를 부과하는 어떤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간섭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조치는 현행 헌법의 범

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정 중립을 표방하는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인종주의, 민족차별, 배외주의의 확산이라는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넷우익에 대한 반대 데모에 조명을 맞추면서 신오쿠보의 한국인 상인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재특회의 배외주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대립하는 것은 데모를 벌이는 두 세력이며, 그들의 주장은 그냥 시끄럽게 싸우는 양측으로 규정되고, 시민과 언론은 이제 링사이드에서 관전하고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는 헤이트 스피치를 제재하는 입법을 주장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규제입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병렬시키는 프레임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배외주의, 인종주의의 문제에 둔감하거나 거북한 문제라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다가 헤이트 스피치라는 논점을 발견한 이후 비로소 중립적인 위치를 발견하게 된 ‘중립 저널리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주요 신문의 보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의 주요 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앞서 검토한 ‘넷우익’에 대한 보도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해당 기간, 즉 2013년 10월 31일까지 ‘재특회’를 포함하는 기사의 건수는 『아사히신문』이 61건, 『마이니치신문』이 59건, 『요미우리신문』이 18건, 『산케이신문』 12건으로 나타났다. ‘넷우익’과 ‘재특회’를 모두 포함하는 기사의 분포를 보면 『아사히신문』은 5건, 『요미우리신문』 2건, 『마이니치신문』 1건, 『산케이신문』 0건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넷우익을 언급한 3건의 기사 가운데 2건이 재특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유사점은 발견된다. 재특회를 넷우익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재특회와 관련된 기사는 경찰 발표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넷우익으로 인식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경우에

는 재특회를 언급한 61건의 기사 가운데 5건에서만 넷우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사히신문』 역시 많은 기사를 경찰 발표 기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재특회’를 포함하는 기사의 대부분은 경찰의 발표 기사였다. 체포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단신일 뿐으로 해설이나 특집기사는 없었다. 재특회라는 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기사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특기해야 할 점은 재특회를 다루는 기사에서 ‘시민단체’라는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라는 명명은 『산케이신문』에서도 발견되는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경우는 특별한 수식없이 ‘재특회’를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즈』에서는 반한단체(the anti-Korean rightist group)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도 ‘anti-foreign, rightist group’, ‘anti-Korean group’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주요 신문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요미우리신문』이 처음으로 재특회를 언급한 기사는 2010년 8월 10일자였는데, 교토제일조선초급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을 향해 ‘스파이의 아이’, ‘바퀴벌레’라고 소리치며 시위를 벌인 재특회 멤버 4명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용의로 체포되었을 때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도 도쿠시마현(徳島県)의 교직업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성기를 이용해 ‘매국노’라며 소동을 벌인 재특회 멤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기사를 모두 오사카판 단신으로 게재했을 뿐 도쿄판에는 게재하지 않았다. 도쿄판에서 재특회 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2013년 7월 3일이 처음이었는데, ‘헤이트 스피치 과열, 인터넷의 도발 현실과 운동, 외국인 차별 드러내며 데모’라는 제목의 첫 취재기사였다. NHK와 마찬가지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해야 하는지가 논점으로 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취재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어떨까? 『아사히신문』의 경우 ‘재특회’를 포함하는 기사는 60건 이상으로 많았고, 처음으로 ‘재특회’에 주목한 기사는 2009년 6

월 18일자 조간이었다. ‘2009년 정권선택 일본의 현재지(現在地) 쌓이는 분노, 고통 정치야말로 ‘유대’ 재생을 논하라’라는 제목으로 당시 자민당 정권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수상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당수 토론을 다루면서, 앞서 논의한 ‘넷우익’에 대한 시선과 마찬가지로 격차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사회에는 지금 각각의 방법으로 사회의 유대를 이어가려는 두 움직임이 있다”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두 움직임이란 재특회의 항의데모와 어느 노동조합의 운동을 가리키는데, 기사에서는 먼저 재특회의 데모에 주목한다. 2009년 5월 31일 도쿄도 주요구청(中央区庁) 앞에서 벌어진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항의하는 200여 명의 재특회 멤버들의 충돌을 소개하며, 재특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특권 요구를 반복하는 재일한국인을 조선반도로 되돌려보내자’라고 소리치며 증오심을 드러낸다. 자신의 생사에 관련된 일이라는 듯이. 항의시위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가 ‘재일특권을 용납치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다. ‘기존 보수’와는 선을 긋는 ‘행동하는 보수’라고 한다.

4월 11일, 그들은 사이타마현 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나타났다. 범죄자 가족을 추방해라. 카르테론 일가를 지원하는 자들을 규탄한다. 큰 딸 노리코를 남기고 국외퇴거 처분이 된 양친이 필리핀에 돌아가기 이틀 전이다. 그 카르테론 씨의 자택 주변과 노리코 양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약 130명이 슈프레히코르¹⁷를 외쳤다.

이 기사에서는 재특회의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 당시 37세)와도 직접 인터뷰를 했다.

17 독일어 Sprechchor에서 온 표현으로 시위 때의 구호와 합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도입되었다.

“카르테론 부부와 그 지원자들에게 분노한 일본인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들은 불법입국해서 계속 불법체재한 범죄자로 뻔뻔한 태도로 일본에 남으려 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우리들의 정치적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많다. 자민당도 엉망이고 우리는 정치에는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재특회의 움직임을 설명한 다음, 도쿄도에서 젊은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NPO법인과 노동조합의 운동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수도권 청년유니온 서기장의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재특회의 회장이 언급하는 “분노”라는 말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동영상이 이만큼 공감을 얻고 있는 것” (사쿠라이 마코토 재특회 회장)

전통적 좌파인 노동운동 세력과 네티우익을 사회에 대한 ‘분노’라는 연결고리로 이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인종차별주의적 배외주의에 아래와 같은 면죄부까지 주는 관용이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배외주의적 주장에 대한 인식은 변명하는 어조다.

재특회의 움직임은 내셔널리즘의 고양과는 조금 다르다. 사쿠라이 씨는 ‘일본인의 프라이드’라는 상징적인 말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특권’이나 ‘외국인 범죄’라고 말한다. 이 말로 환기되는 것이 있다면 불공평감과 불안일 것이다. 이 두 움직임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통하는 곳이 있다.

주요 미디어의 재특회 보도는 재특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기

사 일변도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가 도쿄에서도 재특회에 의한 반한류데모가 확산되면서 ‘안티 레이시즘’을 표방하는 단체의 카운터데모가 벌어지게 되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NHK를 비롯해 좌우, 리버럴, 보수 구별없이 논점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지의 여부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넷우익의 과격화, 인종주의, 배외주의의 확산이라는 논점은 한 번도 제대로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이 말이다.

3) 재특회에 대한 교토지방법판소의 ‘판결’

2013년 10월 7일, 교토지방법판소는 재특회 측에 약 1226만 엔의 배상과 가두선전 금지를 명령했다. 그들의 행위를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오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판결을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그 내용 또한 각 신문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것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월 9일자 사설에서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모멸적인 가두선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상식적인 사법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두시위 때 ‘바퀴벌레’,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으라’라고 외친 것을 교토지방법판소가 의견 표명으로는 볼 수 없고, ‘차별적 발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판결에서 “재특회의 언동을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명하고,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도 조선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뿐 아니라 민족차별의 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특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재특회의 활동이 과격해진 원인을 한국과의 국가 간 갈등의 차원으로 돌리고자 한다. “참가자의 언동이 작년(2012년) 여름부터 과격해졌다고 한다. 한국의 지도자가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하거나, 이른바 중국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일한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와 겹친다.”

마지막으로 논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교토법원이 ‘인종차별’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교토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헤이트 스피치에는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특정 학교 법인의 청구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언동의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차별의 언동을 법률로 규제하도록 계약국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처벌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다. 그렇지만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기억이 농후한 유럽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적 배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사설을 통해 재특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은 『산케이신문』도 마찬가지였다. 10월 9일자 사설에서는 나름대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비판할 점은 보통의 언어(말)로 당당하게 하면 된다. 일부러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판결에서 언급된 것만 하더라도 ‘조선인을 보건소에서 처분해라’, ‘일본에서 두들겨 패서 내쫓아라’는 등, 듣고 있을 수 없는(聞くに堪えない) 말이 있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올 5월(2013년 5월)의 국회심의에서 아베 수상이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모멸하는 행위다. 일본인은 화(和)를 중요시하고, 배타적인 국민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중국과 한국의 반일데모에서는 많은 히노마루(일장기)가 불탔다. 모멸적인 언동도 있었다. 많은 경우 방치되었다. 일본과 일본인은 국내에서 어떤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이고 싶다.

『산케이신문』에 ‘재특회’를 포함하는 기사는 12건이었다. 대부분은 경찰의 발표를 단신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한류’와 ‘데모’를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한 결과는 몇 건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외부 필자의 칼럼이었다. 재특

회를 포함하는 첫 기사는 2010년 8월 10일자였는데, 교토의 조선초급학교에서 벌인 항의시위로 4명의 재특회 멤버가 체포되었을 때였다. 첫 기사부터 『산케이신문』은 ‘재특회’에 ‘시민단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들의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 언동에 대해 ‘항의 행동’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인용은 2010년 8월 10일자 오사카판 석간 사회면 기사다.

시민단체 ‘재일특권을 허용치않는 시민의 모임’(본부, 도쿄) 교토시 미나미구 교토제1조선초급학교 앞에서 작년 12월 시민단체 ‘재일특권을 허용치않는 시민의 모임’(본부, 도쿄) 이 확성기를 사용해 항의 활동을 한 문제로, 교토부 경찰은 10일 업무방해 용의 등으로 교토, 고베, 오사카에 사는 재특회 멤버 4명을 체포했다. 재특회의 항의 활동과 관련해 경찰당국이 적발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재특회는 2006년경에 결성. ‘행동하는 보수’를 내걸고 과격한 말로 항의하거나, 경찰관과 대치하는 데모의 장면을 인터넷 영상 투고 사이트에 생중계하는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회원을 늘렸다. 회원은 6월에 9000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기사의 어조로 봐서는 직접 취재한 기사라기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인용한 기사로 보이고, 앞서 인용한 사설에서도 ‘판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명의 취재기자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취재망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듣고 있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 언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위와 같이 건조한 톤의 기사를 게재했다면 그것은 도대체 왜일까? 교토지방법판소의 판결이 나오고서야 ‘듣고 있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 언동’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도대체 왜일까?

2010년 6월 17일자 도쿄 조간 사회면 기사까지 일관되게 ‘시민단체’라는 수식어를 붙여왔던 『산케이신문』에서는 판결이 나온 10월 7일부터는 이 수식어가 사라진다.

“교토제일조선초급학교가 ‘재일특권을 허용치않는 시민의 모임’에 가두선전 금지와 3천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7일 교토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공교롭게도 『요미우리신문』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이 발견되는데, 별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다가 판결이 나온 2013년 10월 무렵부터 ‘시민단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NHK와 주요 신문이 어떻게 ‘넷우익’의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NHK의 중립적 보도는 넷우익의 문제가 지나친 우경화 경향으로 인식될 때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었고, 사건화된 이후에는 사건기사로만 취급했으며, 과격화된 행동으로 인해 헤이트 스피치 규제론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뉴스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도의 경향이 ‘넷우익’이 기존 미디어에 대해 다시 반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리버럴 신문과 보수(우파) 신문 사이에는 기사의 양과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리버럴 신문의 경우 더 많은 기사를 게재했고, ‘넷우익’이나 ‘재특회’의 등장 배경에 대한 취재(조사)기사가 게재되고 있었다. 반면 보수 우파 신문의 경우는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적은 기사를 게재했고, 첫 기사가 게재된 것은 재특회의 멤버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였다. 재특회가 멤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필리핀인 가족의 본국 추방에 대한 항의데모에 대해서도 보도는 전혀 없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이 글에서는 넷우익의 문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심리와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여론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들이 제기하는 주장이 자연스러운 여론의 분

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낳은 것이 바로 사회 전체의 분위기이고 그 사회의 교육이며 그 사회의 언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과연 일본 국민의 몇 퍼센트가 네티우익적 또는 신우익적 의견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궁금한 문제다. 그러나 앞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지적했듯이 ‘네티우익’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묻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재특회와 같은 네티우익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인터넷의 게시판에 투고를 하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 또한 1%대에 그칠 것이다. 그러한 한편 지난 12월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하루 만에 그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일본의 페이스북 가입자를 약 2000만으로 추정할 경우 약 3.5%의 인구에 해당한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도 현실 사회에서는 찾기 어렵다. 데모의 현장에 가보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말처럼 연수입 200만 엔 이하의 저소득층에 사귀는 여자친구는 없는 루저들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후지TV 데모에 참여했다며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후루야의 반론¹⁸처럼 그들의 저소득층, 저학력도 아니고 오히려 교육수준도 높고 보통의 생활을 하는 생활인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주요 언론이 네티우익의 반한류로 상징되는 배외주의의 여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그 이유는 앞서 전제 한 대로 기존의 주요 언론은 여전히 여론 공간의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인터넷상의 여론이 매스미디어의 여론 공간과 독립적으로 출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호 영향을 주면서 그 입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였다.

18 古谷ツネヒラ, 『フジテレビデモに行ってみた!』.

분석의 결과는 먼저 기존 미디어가 리버럴, 보수 신문 모두 넷우익의 출현과 배외주의적 내셔널리즘의 확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버럴 신문으로 불리는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과, 보수 신문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의 사이에는 양적인 추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시각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좌우 또는 리버럴, 보수의 차이가 아니라, 다테마에와 혼네의 공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오히려 보수적이었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의 차이가 더 본질적이고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기존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은 ‘넷우익’의 승인 욕구를 더 자극했다. 그들은 신문과 방송을 읽으며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즉 언론보도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실천하며, 인터넷상의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인용하며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대단한 집착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 노력과 희생을 감수할 만큼 그들에게는 ‘반일’과 ‘좌익’을 배격하는 활동은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적인 스폰서가 있었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문제이지만 현재의 많은 넷우익 활동가들은 무보수로 그들의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우익이나 보수 세력은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의 후계 세대가 벌이는 과격한 선동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외면하고 있다가, 참다 못해 거리로 나온 그들을 이제는 비판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그들에게서 전통 우익 세력은 ‘우익 유전자의 열성 유전’을 발견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후지TV 데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일본의 ‘넷우익’은 안티 매스미디어를 표방하지만 그들은 또한 매스미디어가 낳아놓은 아이들이기도 하다.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일본 주류 언론의 보도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신보수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해 ‘짜증난다’는 반

응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¹⁹ 그리고 그러한 보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넷우익’은 이러한 주류 언론의 보도를 지켜보며 배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넷우익’적인 기분과 심정은 주간지 저널리즘이나 일부 TV의 선정적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는 말 그대로 ‘흔네’에서 나오는 의견으로서 대표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넷우익’은 반드시 신보수주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냥 한국, 조선, 중국이 싫다는 것이다. 그러한 혐오감과 귀찮고 짜증나는 감정은 보수 우파 미디어를 통해서만 배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국을 배려하고 과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보수, 우파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거칠게 항의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십상인 한국과 그리고 ‘불합리하고 야만적이고 오만한 중국’의 이미지²⁰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화하는 보도를 계속한 중립 미디어, 리버럴 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로 나온 넷우익의 활동은 기존 미디어의 여론 공간에서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됨으로써 입지가 더 확장될 가능성보다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 견해를 밝히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하는 것은 지난 해 말 필자가 가르치는 교실에서 나눈 한 학생과의 대화에서 느낀 직감 때문이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2채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의견들이 사실인 것 같고,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의 진심(本音)을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며, 왜 언론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전하지 않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재특회의 테모와 재판에 관련된 보

19 佐々木真, 「ネットを土壤に育つ 嫌韓, 反日 メディアはこれに応えただろうか」, 『世界週報』, 2006년 1월 31일, 6~17쪽; 황성빈, 「이성적 일본'과 '감정적 한국'의 대립스토리」, 『신문과 방송』, 2008. 8, 58~61쪽 등 참조.

20 黄盛彬, 「中国イメージと“我われ”の自画像」, 『ぎやらっく』, 2008년 10月号, 20~23쪽; 黄盛彬, 「検証・四川大地震報道」, 『放送レポート』 第213号, 2008, 20~23쪽; 黄盛彬, 「2002W杯と日本の自画像, そして韓国という他者」,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第62号, 2003, 23~39쪽 등 참조.

도를 접하면서 점점 그들의 의견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러한 음모론이나 차별적인 언동에 대해 부끄럽게 느끼게 되었다.”

의 공공성 인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은 내향적 생활보수주의로의 소극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향적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일본사회 내 차별과 배제의 소수의 주장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 특별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황성빈

투고일자: 2014. 1. 7 | 심사완료일자: 2014. 1.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 배외주의의 확산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먼저 ‘넷우익’의 현상에 대한 선행 논의를 살펴본 후 일본의 주요 언론이 이 현상 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이 여전히 여론 공간 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인터넷상의 여론이 기존의 여론 공간과 독립적으로 출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 하에 그 입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였다. 분석 결과, 리버럴, 보수 신문 모두 넷우익의 출현과 배외주의 확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버럴(『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과 보수(『요미우리신문』) 사이에는 양적인 추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는 없었다. ‘넷우익’의 동향에 대한 주요 언론의 시각은 『아사히신문』이 ‘변명적, 동정적, 위선적’(apologetic, condescending, hypocritical)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은폐 감추기’(concealing), 『산케이신문』은 ‘암묵적 심정적 지지’(tacitly sympathetic support)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현실적 보수(『요미우리신문』)와 심정적 보수(『산케이신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주요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은 ‘넷우익’의 승인 욕구를 더 자극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넷우익’은 기존 언론의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한 선정주의적, 신보수주의적 심정에 충실한 보도가 낮은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주제어: 넷우익, 반한류, 배외주의, 여론, 일본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 남상욱

투고일자: 2013. 12. 2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아베 신조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를, 미시마 유키오의 정치 미학(political esthetics)과의 대비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최근 일본의 보수주의 속의 미적 감각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아베 신조의 ‘탈전후 레짐’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그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그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아베가 돈이라는 가시적인 가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애국심을 ‘미’로 간주하는 행위를 통해 전후 일본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정치에 미를 도입함으로써, 기시의 생활만을 중시하는 ‘기술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점을 문제화한다. 아베의 행위가 전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전후 일본에서 정치 미학의 필요성을 외쳤던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전물자들에게 미를 부여해 공동체 속에 그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은 전전의 천황만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었는데, 아베는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부활하기는커녕, 천황을 생의 안전을 기원하는 존재로

Xenophobic Voices in Japan: A Case Study of Anti-Korean Demonstrations by *Nettouyoku* and *Zaitokukai* | HWANG Seong Bin

Thousands of protesters in Tokyo and other major cities ralli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power on June 11, 2011, three months after a devastating tsunami set off a nuclear crisis. The demonstration was remarkable not just because of its size, but because of the way in which it was organized. It was actually called upon by a famous blogger without organized support, thus many people in the crowd were protesting for the first time. Meanwhile, in that summer, there was another, a bit peculiar set of protesting rallies against Fuji TV airing “too many Korean dramas”. When a Japanese actor Takaoka Sousuke tweeted anti-Korean wave sentiments in 2011, his message had stirred up many attentions, especially on the biggest Internet bulletin “2 channel” and other online video distribution sites, which eventually led to several protest rallies. So-called *Nettouyoku*, a small but very vocal on the Internet that mostly have strong xenophobic views, have come out to the area such as Shin-Okubo, a mecca for fans of Korean Culture, in full support of the *Zaitokukai* (“Citizens Against Special Privilege of Zainichi-Korean residents in Japan”)

I have examined how Japanese media have framed these protesting rallies by *Nettouyoku* with a special interest and how the protesting voices have been mediated by the media. The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newspapers have been indifferent to the rising of ultra-nationalism and xenophobic voices on the Internet.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iberals (Asahi and Mainichi) and the Conservative (Yomiuri) in terms of how they framed those group’s activities. Y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ervatives, namely Yomiuri and Sankei, was more remarkable and uniqu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recent rise of ‘Internet nationalism’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 in Japan might be an ‘unwanted child’, but it is also a logical consequence of sensational coverage of Japanese media regarding the conflict issue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neighboring countries.

• **Keywords:** Internet nationalism, Xenophobia, public opinion, Japan, Discourse Analysis

Beauty and Nation in Abe Shinzo’s *Toward a Beautiful Country*: The Aesthetics of Postwar Conservatism through the Lens of Mishima Yukio | NAM Sang Wook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beauty” in Abe Shinzo’s *Toward a Beautiful Country: My Vision for Japan* by comparing with Mishima Yukio’s political aesthetic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aesthetics in recent Japanese conservatism.

It has been understood that Abe’s doctrine of “post-postwar regime” is merely his way of idealizing or emulating his grandfather, Kishi Nobusuke.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blematizes Abe’s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s of Kishi’s technical politics by bringing the controversial concept of “beauty” into the field of politics. His attempt to accomplish this